

# 日 친환경 선박 수요 커진다 K-조선기자재 진출길 열려

日 정부 '조선업 재생' 로드맵  
2035년 건조능력 2배 확대 목표  
친환경·디지털 전환 본격화  
日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전경.

전통의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이 '조선업 재건'을 기치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그간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부산시,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2일~2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인 '씨 재팬(Sea Japan) 2026'에 참가해 'K-조선기자재 우수제품관(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참가는 일본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던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 밀려 작년 기준 점유율이 5.4%까지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선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조선업 부흥정책과 진출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생 로드

맵'을 통해 2035년까지 자국 선박 건조능력을 현재의 두 배인 1800만 총톤으로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선박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X-ETS)가 의무화되면서 일본 조선사와 선주들은 수소·암모니아·LNG 추진 시스템 및 탄소배출 저감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조선소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도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로봇 도입 및 생산 자동화 ▲자율운항 기술 ▲데이터 공유 솔루션 ▲유지보수 간편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한국관에는 AI 기반 선박 안전관리, 친환경 선박기자재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 20개사가 참가한다. 이들은 사전 발굴된 일본 바이어와의 1대 1 B2B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선박 건조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기자재 분야에서는 DX·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세대 선박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 실증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목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작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재생 로드맵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해양패러다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 참가를 시작으로 K-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장 분석 정보가 담긴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조기 돌파

기후부, 유가 폭등에 전기차 선호 뚜렷  
올해는 '전기차의 연간 신규 등록대수 10만대' 정부 목표가 조기에 달성됐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섰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전기차 선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사 간 가격결합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만 6939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 전기승용 9만 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 5091대가 보급됐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와 비교해도 약 3개월 빠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 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

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 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지난 15일 기준 100만대를 돌파한 상황이다. 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 5746대 중 8만 3533대로 20.1% 수준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 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송미령, 베트남과 농업협력 강화 나선다

(농식품부 장관)

베트남서 신임 장관과 협력 확대 협의



지난해 3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23일(현지시간) 사흘간 베트남을 찾아 상대국과 '농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K-푸드'의 현지동향' 등도 짚어 볼 예정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초 취임한 쩌 빈엣 흥(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축하인사를 전하고,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지원했던 베트남 국립 가축질병진단센터 현장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선 베트남 측으로부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현지에 진출한 주요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의 급식장소를 찾아 K-식재료의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K-푸드 수출 및 K-외식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중부발전,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성과 알린다

'2026 K-GX 국제주간' 참가  
녹색기술 지원·체험형 부스 운영

한국중부발전은 4월 20일~25일까지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K-GX(녹색대전환) 국제주간·기후변화주간' 행사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UN,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해 UNFCCC 회의, 에너지 전환 정책 대화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중부발전은 이번 행사에서 '탄소중립

실현, 기술과 실천으로 완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 기관의 경영 비전인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선보였다.

특히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성과 등을 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현금 포인트 지급형 폐페트병 자동수거기 소개 등 자원순환 체험 위주로 부스를 구성해 시민들이 탄소 감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행사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부발전 오영철 처장은 김성환 기후부장관과 함께 기후변화주간 홍보 부스 투어를 진행하며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

환 정책과 녹색 기술 지원 의지를 설명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행사 참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와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국제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과 국민 참여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수소 전·혼소 발전, 해상풍력 등 미래 에너지 기술 실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민 2만명 "농협법 개정안 다시 논의하라"

전국 조합장·농업인 여의도 결의대회

회장 간선제 폐지 후 직선제 전환 등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농업인들까지 국회와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 2만여 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이다.

이들은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농

협중앙회장 선출시 전국 조합원 대상의 1인1표제에 대해 조합장 96.1%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반대 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반대 96.4%) 등 주요 쟁점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서부발전, 에너지절약·지역상생 캠페인

지역 식당과 연계해 생활 속 절약 실천  
다회용 앞치마 배포 등 친환경 확산

한국서부발전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연료 수급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본사가 소재한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지역 식당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

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발전 임직원들은 이날 태안읍 일대 식당을 찾아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 요령'이 인쇄된 다회용 앞치마를 전달하고 식당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홍보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지역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 앞치마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을 주면서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식당과 연계해 이뤄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서부발전은 정부의 구내식당 휴무제 취지에 맞춰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휴무 운영을 확대한다. 임직원의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세종=한용수 기자